"에너지 풍부한 호남 대신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 안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불필요한 전력 송·배전만 추가 구축 지방 소멸 부추겨…재검토해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산단)에 대한 지역 환경·시민단체의 규 탄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등 전력 생산량이 풍부한 호남지역 대신 대 규모 국가 산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용인에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불 필요한 전력 송·배전망 추가 구축은 물론 지방 소 멸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국가기간전력 망 건설 정책 등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국 40여개 환경·시민단 체, 주민대책 위원회, 지방의회 등이 서울시 용산 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정책을 규탄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권의 잘못된

국가 산단 및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 건설 정책을 그 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70개 노선의 34만 5000V (볼트) 초고압 송전선 등 3800km에 달하는 전력망 건설 사업을 밀어붙이며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용인으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은 광 주•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곳곳에 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추진하며 비수도권을 약 탈하고 있다. 이는 지방 소멸 시대에 중앙집권화 를 부추기는 시대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수도권 집 중 난개발 사업"이라며 "호남권 계통연계 개선에 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빛·바람 연금 호남권 소외 문제 해결, 광주 ·전남 AI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국가산단 전환 및 유치사업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용인 국가산 단과 초고압 송전선 대량 건설 중단과 함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금도 서울 ·경기는 전기를 대량 소비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 을 지지 않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산과 들을 초고압 송전선이 가로지르며 미세먼지와 각종 대 기오염물질, 전자파, 지가 하락, 지역발전 기회 박

탈 등의 부담을 지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송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 를 호남으로 변경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 소할 수 있고, 전력 수요의 분산을 통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종료시키는 방 안도 제시했다. 대규모 송전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종료하면 전국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을 해제하고 용인에 SK하이닉스 공장 건설을 허가했으며,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다. 산업통 상자원부는 이 같은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 수급을 위해 2023년~2025년에 걸쳐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초고압 송전 망 구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정위탁아동 대학자금 지원, 광주 '0원'·전남 '150만원'

복지부 권고기준 있지만 법적의무 없어 지자체별 지원수준 천차만별 위탁아동 수 광주 289명·전남 693명····양육보조금도 기준에 못미쳐

광주·전남에 1000명 가까운 가정위탁아동이 있 지만,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지원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의 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시.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권고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56만원, 대학진학 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을 지 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시행 의무가 없어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광주에 사는 가정위탁아동은 대학진학자금을 못 받는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1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권고하는 대학진학자금은 500만원으로,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충북(최고 500만원)뿐이었다.

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가 질병·사망·방임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 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를 말 한다. 친부모의 양육 여건이 좋아지면 원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양육 보조금 역시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나이별로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존 1인 월 36만원이었던 보조금 은 나이별로 최고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7세 미만은 이전과 같은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 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했다.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을 올렸다.

전남도는 83개월(만 7세 미만)까지 월 34만원 을 주고 있다. 역시 복지부 권고 기준인 최고액 56 만원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최고 56만원까지 양육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초기 위탁아동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아동용 품 구입비 1명당 100만원(국비 70%·지방비 30%)은 올해 광주와 전남에 각각 2명분이 배정됐 다. 광주는 2명 예산이 모두 집행됐지만, 목포와 무안에 예산을 나눠준 전남도는 아직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동은 광 주 289명(229세대)·전남 693명(553세대) 등 9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친인척에 맡겨 진 아동이 광주 248명(85.8%), 전남 653명 (94.2%)으로 주를 이뤘다. 전문가정에 맡겨진 아 동은 광주 10명·전남 4명이었고, 일시가정위탁 아 동은 두 지역에 모두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 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표면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 치구마다 지원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 광역단위 지 표만으로는 현장의 복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장흥 천관산·무안 식영정 등 10월 관광지 4곳 선정

전남도가 가을꽃과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10월의 대표 관광지 4곳을 선정했다.

10월 추천 관광지는 장흥 천관산, 강진만생태공 원, 나주 영산강정원, 무안 식영정 등 4곳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에 최적화된 장소다.

먼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히는 장흥 천관산 은 10월이면 장엄한 은빛 억새 물결로 뒤덮인다. 강진만생태공원은 2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갈대

군락지로 유명하다. 2~3 m 높이로 자란 갈대들이 바람에 따라 은빛과 황금빛으로 춤추는 모습이 인 상적이다. 나주 영산강정원에는 분홍색, 노란색 등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대규모로 조성돼 방문 객들을 맞이한다. 무안 식영정 일원은 넓게 펼쳐 진 영산강의 풍경을 배경으로 고목들과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 법적 보호가치 없다" 재산 기여 인정 안 해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 급하라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한 원심의 법리오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대통 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보이는 자금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며 분할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

대법원은 1년3개월 심리 끝에 2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 돼, 재산분할 비율·범위만 재심리된다.

재판부는 민법 입법취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서도 동일하게 고려돼야 하고, 상속분할에도 적용

된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의 '분할에서 기여만 참 작' 주장도 불법성과 절연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경영 안정과 지배력 확보를 위해 혼인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 증여·처분 한 SK·SK C&C 주식 친인척 증여금, 급여 반납 등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대를 위한 행 위로 볼 여지가 있어, 2심 변론종결 시점에 보유 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 은 점도 법리오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3남매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 년 조정이 무산되며 소송으로 번졌고, 1심은 위자 료 1억원·분할 665억원을, 2심은 위자료 20억원· 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분할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백천글로벌("갑")과 주식회사 인밸브엔지 니어링("읔")과 주식회사 정정기공("병")과 에스씨에스 주식회사("정")는 2025. 10. 14.에 개최된 각 사의 주국 총회 결의 및 총주주 서면결의로 "갑"의 재산(영업) 일 부 밸브류 수리사업(목적상 각종 밸브류 수리 및 자 보은 "은"에 부한하변하고 최구조문 제조사언(모전 상 육상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철구조물)을 인적분 합하여 그 분합되 부분을 "병"에 분합한병하고 밸브 류 제조사업(목적상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인 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정"에 분할합병 하고, "갑""읔""병""정" 각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 이번 주주총회는 상법 제530조의 3에 의거 주측 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상법 제530조 의9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 분할승계회사들은 당 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전되지 않은 나 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 이 공고 게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 총액 급1.500.000.000원 중 850.000.000원을 감소 한 6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10.000원의 주식 150.000주에 대하여 85.000주를 회 사와 주주들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매입하여 임의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되어 발행주식 총수가 65.000주(자본금 650.000.000원)로 변경되오니 각사 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이 공고 게시 다음날 부터 1월 이내에 각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

"갑" **주식회사 백천글로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94(화치동) 공동대표이사 성기 진 공동대표이사 곽영회

"을" 주식회사 인밸브엔지니어링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94, 10동(화치동) 대표이사 김 인 호 '병" 주식회사 정정기공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94, 8,9동(화치동) 대표이사 정영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94(화치동) 사내이사 곽영환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법인은 2025년 1월 22일자 이사회 (서면)결의(2025월 7월 17일 주무관청 승 인)에 의하여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법 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 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 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36

청산인 김영록

자은주민바람발전소 발전사업허가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설비용량 기건이 있으신 분은 해당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2025년 10월 17일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__ , 교 · , 0 o, 기가 뜻 번역 - 명 칭 :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 - 위 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일원 - 면 적 : 11.969.8㎡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설 비 용 량:기존40.0M→변경29.4M -사업개시일:2024년3월23일 3.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팩 스: 062-227-7730

- 신 청 자 : 자은주민바람발전쇠 - 최대주주 : 카이에너지그룹㈜ 4. 의견제출기간 . - TC 개발 / TC - 공고입로부터 7일간(2025년 10월 23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 하여 자유양식으로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우편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21, 4층 401호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09월 04일 사원총회 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09월 15일자 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 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 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백장농원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89 청산인 김종태

름 조대부고 조금 총동창회

2025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당

일시: 2025. 10. 19(일) 09:30

■ 장소:모교운동장

■ 전화: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조성래**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최고. 대지 848.5㎡ 건물 3,846㎡

현재 월 3천 1백, 수익률 7%

(소이청소년과 마취통증과 약국 성업중)

매 69억 9천. 인수가 17억

군산중심대로. 롯데마트 앞.

주인직 010-3646-8700

kwangju.co.kr 光则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직통전화 062) 521 -4109 010-2785-0073

② 光则日報

지국안내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3-6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부 673-6836 •백 운 651-1833 •봉 선 673-6836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